

한국사원의 귀면장식과 김제 금산사 출토 「王」자명 귀면기와

김성구 前 국립경주박물관장

목차

I. 머리말

II. 사원의 귀면장식

1. 불전 내부의 귀면
2. 불전 외부의 귀면
3. 기타 귀면장식

III. 「왕」자명귀면기와

1. 사원출토 귀면기와
2. 「왕」자명 귀면기와
3. 「王」자명 귀면장식

IV. 귀면의 특성

1. 정면관
2. 부조형과 단청문양
3. 두 눈과 입을 강조하다
4. 以鬼制鬼의 벽사
5. 신조어 龍面의 착오

V. 맺음말

국문초록

한국사원의 귀면장식은 불전의 내부와 외부, 기타 귀면으로 분류하였는데 대부분 조선후기의 작례를 나타냈다. 김제 금산사에서 출토한 「왕」자명귀면기와의 계기로, 귀면기와의 사용처와 특성에 대하여 살폈는데, 귀면이 새겨진 기와의 종류가 수막새와 암막새, 부연기와의 사례기와, 마루끝기와의 망와, 치미와 보탑장식 등 매우 다양하였다.

금산사의 봉천원구 발굴조사에서 출토한 「왕」자명귀면기와는 고려시대의 수막새이다. 그런데 경주 안압지와 월성에서 출토한 통일신라의 사례기와와 중국 법문사에서 출토한 당의 금은다구, 강화 전등사와 순천 정혜사의 대웅전의 불단, 양산 통도사의 세존비 등에 새겨진 조선시대의 「왕」자명귀면자료를 통하여 「왕」자가 잡귀와 사귀를 막는 벽사의 최고 지위와 으뜸을 의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귀면은 무서운 귀신의 얼굴로 사귀와 잡귀를 막는 벽사적인 기능을 한다. 귀면은 몸체를 생략한 정면관 위주로, 두 눈과 입을 특히 강조하며, 사람이 무서운 귀신을 이용하여 요사한 사귀를 막아내는 벽사가 가장 주요한 특성이 되었다. 그런데 입에 물고기를 문 귀면은 조선후기에 상당히 성행하였는데, 화마를 막기 위한 특수한 의장으로 주목된다. 그리고 귀면과 귀와는 일본말이 아니라, 『고려사절요』와 『해동잡록』, 『박씨전』 등 우리나라의 여러 문헌에 기록되었거나 《수궁가》와 《회심곡》 등의 여러 가사에 나왔던 순수한 우리말이다. 따라서 귀면을 수면이나 도깨비, 신조어인 용면이나 귀룡으로 부르는 것은 부적합하며 잘못되었다.

주제어 : 한국사원. 금산사. 귀면. 귀면기와. 「왕」자명귀면기와. 불단. 윤장대.
도철문. 벽사. 정면관. 부조. 단청문양.

I. 머리말

귀면은 무서운 귀신의 얼굴로 사귀를 막고 잡귀를 쫓는 벽사를 상징한다. 한국의 귀면은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그려졌고, 목조건축과 기와의 주요한 장식과 문양으로 채용되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성행하였다. 그러나 귀면이 그 명칭과 함께 도깨비나 수면, 용 또는 용면으로 잘못 이해되어 그 특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였고, 귀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자료의 집성도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김제 금산사의 봉천원구 발굴조사에서 「왕」자명귀면기와가 2007년에 출토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한국사원의 귀면장식과 귀면기와의 변천 및 그 특성에 대하여 간단하게 고찰하였다. 한국사원의 귀면장식은 조선시대의 귀면자료가 대부분으로 중요시되고 있다. 사원의 귀면을 사용처에 따라 불전의 내부와 외부, 기타 귀면장식으로 분류하여 그 개요를 살폈는데 자료의 방대함과 함께 형식적인 변화도 풍부하였다. 그리고 귀면기와는 지붕에 이어진 주요한 건축부재로, 불전의 내부와 외부 등에 사용된 다양한 귀면장식과 함께 사원에 대한 벽사기능을 이중삼중으로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귀면가운데 귀면의 입에 연화나 금강저가 장식된 것이나 귀면이 물고기를 입에 문 것은 불법수호와 함께 화마를 막기 위한 벽사의 특수한 의장이라고 할 수 있고, 「왕」자명귀면의 「왕」자의 의미는 귀면이 벽사의 최고 지위와 으뜸임을 나타낸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귀면의 주요한 특성으로 정면관과 부조형 및 단청문양, 두 눈과 입을 강조하고, 以鬼制鬼의 벽사와 龍面의 착오 등을 함께 검토한 것은 용과 다른 귀면의 독자적인 의장과 그 기능과 역할을 살피는데 좋은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사원의 귀면장식

1. 불전 내부의 귀면

1) 불단의 귀면

불단은 불전 안에 불상을 안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수미단이라고도 한다. 불단은 나무로 축조된 장방형이 대부분인데, 여러 문양이 조각되어 화려하면서도 장엄한 분위기를 나타낸다. 불단에 귀면이 장식된 우리나라의 사원은 20여 곳인데, 강화 전등사의 대웅전과 세종 비암사의 극락보전 이외에 대부분 호남과 영남지방에 분포하고 있다. 호남지방은 익산 승림사의 보광전과 김제 금산사의 대장전, 구례 화엄사의 원통전과 순천 동화사 및 정혜사의 대웅전, 강진 무위사의 극락보전과 해남 대흥사의 대웅전 등이고, 영남지방은 경산 환성사의 대웅전과 영천 은해사 백홍암의 극락전, 청도 운문사의 대웅전



〈그림 1〉 불단 환성사 대웅전 조선



〈그림1-1〉 불단 귀면

과 대비사의 대웅전, 부산 범어사의 대웅전과 양산 통도사의 대웅전 및 하동 칠불사의 대웅전 등이다.

경산 환성사 대웅전(보물 제562호)은 정면 5칸, 측면 4칸의 다포계로 1635년(인조13년)에 중건되었는데, 불단은 중앙의 後佛壁에 맞추어 설치하였다. 불단〈그림1〉은 장방형으로 하단부가 정면 12칸, 측면 4칸인 3층으로 구성되어었는데, 하단 2층에는 각종 화초와 서수 등을 투각하여 채색하였다. 불단 정면의 하단 1층에는 용을 조각하였고 양 측면 하단 아래의 4칸에는 귀면을 각각 부조하여 차이를 보였다. 동측면의 불단 하단 1층에는 남쪽부터 청색과 황색으로 각각 채색된 귀면 4개가 부조되었는데, 귀면은 입에서 귀기를 내뿜거나 국화나 금강저 및 연꽃 등을 물어 용과 다른 차이를 잘 나타냈다¹⁾. 서측면의 하단 1층에는 청색과 황색으로 채색된 귀면 4개가 안상 안에 부조되었는데 귀기를 내뿜거나 연꽃봉오리〈그림1-1〉를 물었다.

순천 동화사 대웅전 불단〈그림2〉은 하단부가 3층으로 구성하였는

1) 환성사 대웅전 불단 하단부에 조식된 귀면을 모두 용으로 해설하였다. 그러나 용은 입에 연화나 국화, 금강저를 물지 않아 용이 아닌 귀면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문화재관리국 1988년 119p.).



〈그림 2〉 불단 동화사 대웅전 조선



〈그림 2-1〉 불단 귀면

데, 정면과 측면의 하단부에 여러 짐승과 꽃을 부조하였다. 귀면은 불단 정면의 하단부 1층에 4개, 두 측면 하단부 1층에 각각 2개씩 총 8개인데, 서수 및 모란과 번갈아 배치하였다. 귀면은 백색을 바탕으로 적색과 녹색으로 채색되었고 입에 연꽃봉오리를 문 귀면 〈그림2-1〉과 장식이 거의 없는 귀면으로 나뉜다. 동화사 대웅전(전남유형문화재 제61호)은 1696년(숙종22년)에 중건되었는데 불단에 새겨진 귀면도 이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단의 귀면장식은 무섭게 의장되어 사귀를 막는 불법수호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 외에도 은해사 백홍암의 극락보전과 통도사 대웅전, 범어사 대웅전과 화엄사 원통전 등 불단의 조각이 화려하고 다양한데, 대비사 대웅전과 전등사 대웅전, 정혜사 대웅전의 불단에 각각 조각된 귀면의 이마에는 「왕」자가 새겨져 후술한 「왕」자명 귀면기와와 대비되어 중요시되었다.

2)보 · 총량의 귀면

보는 기둥위에서 지붕의 무게를 받는 수평재로 도리와 직각을 이룬

다. 보의 단청문양은 머리초와 함께 중간부위의 장식에 주로 쓰였는데, 귀면은 대들보와 충량에 단청문양으로 약간씩 그려진다. 영덕 장육사의 대웅전(경북유형문화재 제138호)은 1900년(광무4년)에 수리되었는데 대들보(그림3)에 귀면이 무섭게 그려졌다. 대웅전 내부는 빗천장의 주악비천상과 벽체의 보살상벽화 등 여러 단청문양으로 화려한 편인데, 귀면은 머리초문양으로 근대에 장식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귀면이 머리초로 그려진 대들보의 단청문양은 통영 안정사의 대웅전에서도 나타났는데, 근래 여러 사찰에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충량은 평주와 대들보사이에 걸쳐진 보로 대개 굽은 모습이다. 그런데 대들보 위에 놓인 충량의 끝에는 용이 조각되거나 평평하게 다듬어 귀면이 장식되기도 한다. 고성 옥천사 대웅전의 우측과 좌측의 충량(그림4)에는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귀면이 그려져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귀면은 단청의 단독문양으로 홍색과 백색, 흑색으로 채색되어 정제된 모습이다. 그리고 충량에 귀면이 단청의 단독문양으로 장식된 예는 여수 흥국사의 대웅전과 군산 불주사의 영산전, 김천 청암사의 보광전 등인데 조선 후기와 근대의 작례를 나타냈다.



〈그림 3〉 대들보 귀면 장육사 대웅전 근대



〈그림 4〉 충량 귀면 옥천사 대웅전 조선

3)판대공의 귀면

판대공은 여러 개의 판재를 겹쳐 올린 대공의 하나로, 대들보나 종보 등의 보위에 얹혀 그 위의 보나 도리를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판대공에는 대개 당초와 같은 넝쿨이 그려지나 간혹 무서운 귀면이 장식되어 벽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 김해 은하사 대웅전(경남유형문화재 제238호)은 보위에 2개의 판대공이 놓였는데 3개의 판재를 겹쳐 올렸다. 2개의 판대공은 표면과 이면에 귀면과 넝쿨을 각각 장식하였는데 거의 동일한 모습이다. 좌측 판대공의 귀면<그림5>은 이빨을 드러낸 큰 입이 대들보를 물고 있는 형상이다. 그런데 판대공의 이면<그림5-1>에는 조선 전기에 성행한 당초문이 새겨졌는데 조선 중기에 제작된 것으로 간주된다.

영주 부석사의 종루에는 북과 목어가 걸려 있다. 종루는 앞면이 팔작지붕이고 뒷면이 맞배지붕으로 차이가 있는데, 내부의 보위에 놓인 중앙의 판대공에 귀면이 그려져 주요한 자료가 되었다. 판대공의 전면에는 물고기를 문 귀면<그림6>을 그렸으나 후면에는 아무 것도 물지 않은 귀면이 그려져 서로 다른 모습이다. 그리고 종루의 여러 화반에



〈그림 5〉 판대공 귀면 은하사 대웅전 조선



〈그림 5-1〉 판대공 당초(후면)

도 귀면이 부조되어 벽사기능을 잘 나타냈다. 그런데 「부석사 종각중수기」에 의하면 부석사 종각은 1746년에 소실되어 1747년(영조23)에 중수되었는데, 판대공의 귀면은 조선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4) 내부 화반의 귀면

화반은 주간의 창방과 뜬 장여사이에 놓여 도리방향의 긴 부재를 받쳐주기 위한 것으로, 주심포계 공포와 익공계 짜임에서 주로 사용된다. 그런데 다포계 공포에서 외부의 화반은 거의 없으나, 내부 공포 사이에는 화반형태의 부재가 사용되어 넓은 의미에서 이 부재도 화반에 포함하고 있다. 화반의 표면과 이면에는 연화나 당초, 귀면 등이 조각되어 건물의 장엄과 장식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고성 옥천사의 자방루(경남유형문화재 제53호)는 정면 7칸, 측면 3칸의 주심포계로 정면과 후면, 양 측면에 20개의 화반이 있다. 이 가운데 연화화반이 14개이고 귀면화반이 6개이다. 자방루의 화반은 불전 내부와 외부에 해당하는 화반의 이면과 표면에 거의 동일한 연화와 귀면이 새겨졌는데, 내부의 귀면<그림7>은 외부의 귀면과 같이 당



〈그림 6〉 판대공 귀면 부석사 종루 조선



〈그림 7〉 귀면화반 옥천사 자방루 조선



〈그림 8〉 내부화반 귀면 용문사 대웅전 조선

초와 물고기를 물고 있다. 그런데 화반의 표면과 이면에 귀면이 장식된 것은 고성 옥천사의 자방루가 대표적인데, 속초 신흥사의 사천왕문과 김천 직지사의 천왕문 등은 근대이후에 제작된 귀면 화반이 사용되었다.

다포계 공포의 불전 내부의 화반에 귀면이 장식된 예는 남해 용문사의 대웅전과 여수 흥국사의 대웅전, 부안 개암사의 대웅전과 양산 통도사의 명부전 등이다. 남해 용문사의 대웅전(경남유형문화재 제 85호)은 다포계 팔작지붕으로 주간 사이의 화반에 물고기를 문 귀면 〈그림8〉을 장식하였다. 용문사는 조선 숙종 때 승병의 활약이 뛰어나 守國寺로 지정되었는데, 귀면은 그 당시에 제작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외에 여수 흥국사의 대웅전과 부안 개암사의 대웅전, 양산 통도사의 영산전도 다포계 공포의 내부 화반에 귀면이 장식되어 다양함을 살필 수 있다.

5) 윤장대의 귀면

예천 용문사의 대장전(보물 제145호)은 정면 3칸, 측면



〈그림 9〉 윤장대 용문사 대장전 조선

2칸의 다포계 맞배지붕으로 1670년(현종11년)에 중수하였다. 대장전에는 국내 유일하게 회전식윤장대(보물 제684호) 2기가 불단의 우측과 좌측에 설치되어 중요시되었다. 윤장대는 「중수비」에 의하면 고려 명종3년(1173년)에 설치하였고 조선 인조3년(1625년)에 중수하였다고 한다. 윤장대<그림9>는 8각의 지붕아래 포작이 밀집된 작은 당우와 같은데, 대장전의 바닥마루와 천정에 축을 세워 고정하였다. 8각형의 각 면에 문을 달아 경전을 넣을 수 있게 하였고, 하단부에 손잡이를 달아 윤장대를 돌릴 수 있게 하여 轉經信仰을 잘 나타냈다. 우측과 좌측의 두 윤장대는 비슷하나 단아한 빗살문과 화려한 꽃살문의 차이가 있다.

윤장대의 귀면은 팽이처럼 급격히 좁혀진 하단부의 8각형 각 면에 글씨와 함께 먹물로 그려졌다. 두 윤장대는 8각형의 각 면에 1개씩 8개의 귀면이 그려져 주목되었는데, 윤장대에 넣어둔 경전을 사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벽사를 나타냈다. 윤장대의 귀면 <그림9-1, 9-2>은 대부분 먹물로 그려졌고 일부가 채색되었는데 약간씩 다른 모습이다. 귀면은 정면관으로 무섭게 의장되었는데 눈과 눈두덩이 강조되었고 빨은 소뿔모양인 우각형이다.



<그림 9-1> 우측 윤장대 귀면



<그림 9-2> 좌측 윤장대 귀면

2. 불전 외부의 귀면

1) 보빨목의 마구리귀면

보빨목은 대들보가 도리 밖으로 돌출된 것으로 주심포 위에 위치하는데, 이의 마구리에 귀면이 부조되어 벽사기능을 나타낸다. 강화 정수사의 대웅보전(보물 제161호)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으로 주심포양식인데, 정면 보빨목의 마구리<그림10>에 청색귀면과 황색귀면이 부조되었다. 우측 귀면<그림10-1>은 청색귀면으로 아래를 향한 두 눈이 사시에 가깝고 빨은 우각형이다. 그런데 이익공계 건물 가운데 보빨목의 귀면은 강남 봉은사의 판전에 장식되었다. 판전은 판각한 경전을 보관한 전각으로 1856년(철종7년)에 건립되었는데, 보빨목의 귀면은 단청의 단독무늬로 그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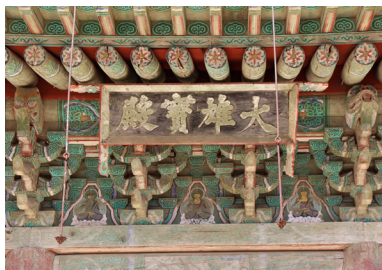
다포양식의 불전가운데 보빨목의 마구리에 귀면이 장식된 것은 강화 전등사의 대웅보전과 논산 쌍계사의 대웅전, 속초 신흥사의 극락보전과 통영 안정사의 대웅전, 고창 문수사의 대웅전 등 비교적 많은 편이다. 전등사의 대웅보전(보물 제178호)은 정면 3칸, 측



〈그림 10〉 보빨목 귀면 정수사 대웅보전 조선



〈그림 10-1〉 보빨목 청색 귀면



〈그림 11〉보빨목 귀면 전등사 대웅보전 조선



〈그림 11-1〉후면 보빨목 귀면

면 3칸의 다포계 팔작지붕으로 1621년(광해군13년)에 조성되었고 1855년(철종6년)에 중건되었는데, 현판이 걸린 두 주상포위의 보빨목 마구리〈그림11〉에 귀면이 장식되었다(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86, 107p.). 귀면은 정면과 후면의 보빨목〈그림11-1〉이외에 우측면과 좌측면의 주상포위에도 새겨져 벽사를 잘 나타냈다. 귀면은 빨목의 마구리에 눈과 코, 입과 이빨을 파내어 부조하였는데, 입가의 수염이 빨목 표면까지 채색되어 鬼頭와 같은 모습이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보빨목의 마구리귀면은 논산 쌍계사의 대웅보전(보물 제408호)과 속초 신흥사의 극락보전(강원유형문화재 제14호)에도 장식되

어 보빨목의 벽사기능을 잘 살필 수 있다.



〈그림 12〉보빨목 귀면 안정사 대웅전 조선

통영 안정사의 대웅전(경남유형문화재 제80호)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 팔작지붕으로,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는데 1751년(영조 27년)에 중건하였다. 대웅

전의 정면 주상포 위에는 물고기를 문 귀면이 보빨목의 마구리에 장식되어 중요시되었다. 귀면은 청색과 황색<그림12>의 두 귀면으로 구분되었는데, 물고기를 문 입과 코, 눈과 빨이 높게 부조되었고 빨목의 표면에도 당초가 그려졌다. 그런데 고창 문수사 대웅전(전북유형문화재 제51호)은 다포계의 맞배지붕으로 1834년(순조34년)에 중창되었는데, 보빨목의 마구리귀면이 단청의 단독무늬로 장식되어 부조형 귀면과 차이를 나타냈다.

2) 공포사이의 귀면장식

부안 개암사의 대웅전(보물 제292호)은 정면 중앙의 공포 사이에 2개의 귀면장식<그림13>이 부착되어 특이하다.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 팔작지붕으로, 1636년(인조14년)에 중건되었고 1783년(정조7년)에 중수되었다. 귀면장식은 공포사이의 장혀 밑에 부착하였는데, 2011년경에 단청공사가 실시되어 청색귀면과 황색귀면으로 단장되었다.

귀면장식<그림13-1>은 단청되기 이전의 상태로 고풍스런 모습인



<그림 13> 공포 사이 귀면 개암사 대웅보전 조선 <그림 13-1> 우측 귀면

데 방형의 널판자에 귀면을 높게 새겼다. 뿔은 분기하지 않은 소뿔모양의 우각형이고, 눈에 눈망울이 그려져 경계심을 강조하였다. 코와 귀는 구멍이 나 있고, 입은 아무 것도 물지 않고 이빨을 드러냈는데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주요한 자료로 중요시된다. 그리고 대웅전의 내부 화반에도 귀면이 장식되어 공포사이의 귀면장식과 함께 벽사기능을 잘 나타냈다.

3) 도리의 마구리귀면

도리는 기둥과 기둥사이를 건너지르는 부재로 보와 직각방향으로 놓이는데, 지붕의 하중을 직접 받는다. 도리는 그 형태와 놓이는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는데, 부재의 끝 단면인 마구리에는 연화나 태평화, 귀면 등이 단청문양으로 장식된다. 도리의 마구리귀면은 평방뿔목이나 창방뿔목의 마구리귀면과 같이 조선 후기부터 성행하였는데 현재 남아있는 귀면은 대부분 근대이후에 도채된 것이다.

강진 백련사의 대웅전(전남유형문화재 제136호)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 건물로 1762년에 건립하였다. 도리의 마구리<그림14>



<그림14> 도리뿔목 귀면 백련사 대웅전 근대

는 황색귀면과 청색귀면이 장식되었는데 주변에는 연화머리초가 그려졌다. 그런데 대웅전 네 귀의 도리 마구리에는 청색과 황색, 적색의 귀면이 단청의 단독문양으로 장식되었는데, 동북과 북서방향 도리의 마구리에

는 귀면과 태평화가 장식되어 차이를 나타냈다.

4) 창방 · 평방뿔목의 마구리귀면

창방은 건물의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 주는 주요 부재로, 다포양식에 서는 창방위에 평방을 포개어 위의 하중을 함께 받게 한다. 창방과 평방은 네 귀에 뿔목으로 결구되고 그 끝의 마구리에는 여러 문양이 장식하게 된다. 파주 보광사 대웅전(경기유형문화재 제83호)은 팔작지붕의 서향 건물로, 1622년(광해군14년)에 재건된 후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개수되었다. 대웅전의 창방뿔목 마구리<그림15>에는 귀면과 비단무늬가 장식되었는데, 위에 놓인 평방에도 신장상과 비단무늬가 그려져 차이를 나타냈다. 귀면은 정면 창방뿔목의 마구리에 장식되었는데 탈색되어 잘 살필 수 없었으나 두 뿔은 분기하였고 입에 송곳니가 드러나 위협적인 모습이다. 대웅전의 지붕에는 「만력 38년(1610년)」의 연호가 새겨진 문자암막새가 이어져, 기와의 수명이 현재까지 408년간임을 알 수 있어 주요한 자료가 되었다(김성구 2014, 154~156pp.).



〈그림 15〉 창방뿔목 귀면 보광사 대웅전 근대



〈그림 16〉 평방뿔목 귀면 용문사 대장전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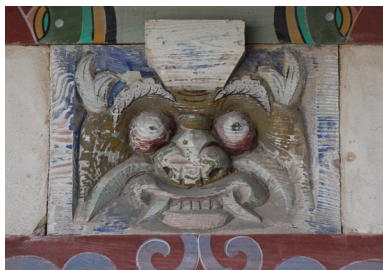
예천 용문사의 대장전(보물 제145호)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다포계 맞배지붕으로 1670년(현종11년)에 중수하였다. 대장전의 평방뿔목의 마구리에는 별도로 제작된 목제귀면이 부착되어 중요시되었다. 평방뿔목의 마구리에는 대개 단청의 단독문양으로 연화나 당초문, 태평화나 귀면 등이 장식되는데, 대장전의 평방뿔목 마구리에는 목제귀면이 별도로 제작되어 부착되었다. 우측의 귀면<그림16>은 황색으로 입에 초엽을 물었고, 좌측의 귀면은 후술한 바와 같이 청색으로 입에 물고기를 물어 서로 다른 모습이다. 목제 귀면은 오랫동안 풍우에 노출되어 마손되었는데 대장전의 중수와 같은 시기인 조선 중기에 제작된 것으로 간주된다.

5) 외부 화반의 귀면

화반은 주심포식 공포와 익공식 짜임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주간의 창방과 뜬 장여사이에 위치한다. 전술한 내부 화반과 같이 화반의 표면과 이면이 불전의 외부와 내부로 구분되어 연화문과 당초문, 귀면 등의 여러 문양이 부조되거나 장식된다.

김제 망해사의 낙서전(전북문화재자료 제128호)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주심포계의 팔작지붕으로 1589년에 초창되어 20세기 초에 개수되었다. 평면이 「ㄱ」자형으로 공포는 익공양식이다. 방형의 귀면 화반<그림17>은 양감이 있는 부조형으로, 청색과 적색, 흰색으로 채색하였다. 뿔은 분기한 녹각형이고 눈은 눈망울이 높게 도드라졌으며 입은 송곳니가 날카롭다.

고성 옥천사의 자방루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정면 7칸, 측면 3칸의 주심포계의 팔작지붕으로, 1764년에 건립되어 1888년에 중수하였다.



〈그림 17〉귀면화반 망해사 낙서전 조선



〈그림 18〉귀면화반 옥천사 자방루 조선

자방루의 외부 화반은 내부 화반과 같이 연화화반이 14개이고 귀면 화반이 6개로 모두 20개이다. 외부의 귀면화반〈그림18〉은 전술한 내부 화반〈그림7〉의 표면에 해당되는데 입에 물고기와 당초를 물었다. 귀면은 흰색바탕에 청색반점이 찍혔고 코는 홍색을, 당초문은 녹색으로 채색되었다. 그런데 연화화반은 화병 안에 연꽃과 연밥이 새겨졌는데 귀면화반과 시기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6) 궁창의 귀면

궁창은 창호의 하부에 장착되는 방형의 널판자로, 궁창초로 불리는 다양한 단청의 단독문양이 장식된다. 여러 궁창초가운데 길상문양으로 연화·모란·보상화·당초 등이 있고, 사귀를 막는 벽사문양으로 귀면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귀면은 창호의 궁창뿐만이 아니라 전술한 바와 같이 처마 밑 보뿔목과 화반 및 창방뿔목 등 여러 부재에 장식되어 불전과 부처를 사귀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중 삼중으로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궁창의 귀면은 풍우에 훼손되어 조선시대의 자료는 거의 남아 있



〈그림 19〉 창호와 궁창 금산사 대장전 조선



〈그림 19-1〉 궁창 귀면

지 않다. 김제 금산사 대장전의 창호〈그림19〉는 꽃살문과 함께 궁창의 귀면이 남아있다. 대장전(보물 제827호)는 원래 목조탑이었으나 1635년에 불전으로 바뀌었고, 1922년에 현 위치로 옮겨졌다. 창호의 궁창에는 청색 귀면과 황색 귀면〈그림19-1〉이 補彩되어 꽃살문과 조화를 이루었는데 조선 후기로 추정된다. 귀면은 연꽃과 연잎을 입에 물었는데 연꽃의 색은 적색과 청색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이 외에도 궁창의 귀면은 1905년에 건립된 김천 청암사 보광전과 나주 불회사의 삼성각 등 여러 창호에 단청문양으로 장식되었으나 대부분 근대이후의 것으로 간주된다.

7) 소맷돌의 귀면

소맷돌은 돌계단의 난간 부분으로 층계 양쪽의 마구리에 세우는 돌이다. 소맷돌은 삼각형이나 무지개모양인데 대개 전면에는 용을 조각하였고 두 측면에는 연화나 구름, 서수 등을 새겨 벽사와 길상을 나타냈다.

속초 신흥사의 극락보전에는 돌계단이 있는 큰 석계가 있다. 석



〈그림 20〉소맷돌의 귀면 신흥사 극락보전 조선

계의 소맷돌은 삼각형의 판석인데 전면에 용두가 조각되었고 두 측면에는 상부와 하부에 안상을 두고 귀면과 태극, 구름을 새겼다. 귀면 〈그림20〉은 원형의 태두리 속에 부조하였는데 정면관으로 매우 정제된 모습이다.

신흥사 극락보전(강원유형문화재 제14호)은 1647년(인조25년)에 건립되었고 1750년(영조26년)에 중수되었는데 석계도 조선 중기에 조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3. 기타 귀면장식

1) 석탑 · 사리장엄구의 귀면장식

석탑과 사리장엄구에 귀면이 장식된 것은 통일신라시대부터이다. 석탑의 귀면장식은 경주 장항리사지의 서오층석탑(국보 제236호)과 울산 간월사지 삼층석탑, 그리고 영동 영국사 삼층석탑(보물 제533호) 등에 나타났고, 고려 전기의 승탑인 화순 유마사 해련탑(보물 제1116호)에도 부조되었다. 장항리 서오층석탑은 신라석탑의 전형양식으로 1층 탑신의 4면에 각각 문비를 모각하여, 외측에는 인왕을 새겼고 내측에는 고리가 달린 한 쌍의 귀면〈그림21〉을 양각하였다. 그런데 영국사 삼층석탑은 탑신에 자물쇠와 귀면이 함께 새겨졌고, 화순 유마사 해련탑은 탑신의 앞면에 귀면장식이, 그리고 뒷면에 자물



〈그림 21〉 석탑의 귀면장식 장항리사지 통일신라

쇠와 함께 고리만 새겨져 차이가 있다.

사리장엄구의 귀면장식은 경주 감은사지 동·서삼층석탑에서 발견된 금동사리의함에 부조되었다. 금동사리의함(보물 제336호)은 1959년에 발견되었

는데, 1996년에 출토한 동삼층석탑의 금동사리의함과 거의 같은 형식이다. 사리의함 〈그림 22〉의 4면에는 사천왕상이 못으로 고정되었는데, 북쪽을 지키는 다문천의 좌우에 귀면이 장식되어 당시의 수준 높은 불교공예의 정수를 엿볼 수 있다. 그런데 금동사리의함의 귀면은 연주형의 고리를 입에 물었는데, 후술한 익산 미륵사지에서 출토한 향로의 귀면장식과 같이 귀면의 또 다른 의장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2〉 사리장엄구의 귀면장식 감은사 통일신라 국립중앙박물관

2) 향로의 귀면장식

귀면이 장식된 금동향로(보물 제1753호)는 미륵사지 목탑 회랑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출토하였다. 다리와 몸체, 뚜껑 등 3부분으로 이루어진 향로 <그림23>는 다리가 4개인 다족향로로 반구형뚜껑과 함께 매우 드문 유형에 속한다. 그런데 獸面을 무섭게 새긴 다리는 몸체를 받쳤는데, 다리사이의 몸체에는 고리를 입에 문 귀면 4개가 부착되어 벽사기능을 잘 나타냈다.

금동향로의 귀면장식 <그림23-1>은 별도로 제작하여 부착하였는데, 귀면이 유약하여 8세기 중엽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귀면은 다리의 수면과 다르게 혀를 내밀어 송곳니를 드러냈고 이마에 뿔이 돋았는데 사자와 다른 모습이다(국립문화재연구소·미륵사지유물전시관 2008, 13~36pp.). 그런데 경주 안압지에서 출토한 금동귀면<그림24>은 통일신라직후에 제작된 대표적인 문고리장식으로, 전술한 석탑의 문비나 금동사리외함, 금동향로 등의 귀면장식



〈그림 23〉 금동향로 미륵사지 통일신라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그림 23-1〉 몸체 귀면장식



〈그림 24〉 금동귀면장식 안압지 국립중앙박물관

과 같이 당시에 성행하였던 주요한 의장이라고 할 수 있다.

3) 사적비의 귀면

불교와 관련된 사적비는 사원의 개창과 중건 및 개수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였는데, 기적비라고도 한다. 사적비는 그 형태가 비석을 받치는 비좌와 비문을 새긴 비신, 비신을 덮는

개석 즉 이수로 이루어지는데, 간혹 대좌와 이수에 귀면이 장식되어 역사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고흥 능가사사적비(전남유형문화재 제70호)는 사찰의 창건 및 중수에 관한 내역을 적은 비로, 비문에 나온 「승정기원후 경오…」의 기록에 의해 1630년(인조8년)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의 이수에는 이룡이 뒤엉켜 조각되었는데, 좌우의 측면에는 귀면〈그림25〉과 사자가 새겨져 특이하다. 귀면은 물고기를 물었는데 사자와 함께 용과 구별되는 주요한 실례가 되었다. 그런데 1906년에 세운 고성 건봉사 사적비는 이수의 두 측면에 귀면이 장식되어 능가사사적비의 귀면장식과 차이를 나타냈다.

해남 대흥사의 서산대사표충사기적비〈그림26〉는 1791년(정조15년)에 조성되었는데, 비좌의 정면에 2개의 귀면이 장식되어 주요한



〈그림 25〉 능가사 사적비의 귀면 조선
(1630년)



〈그림 26〉 서산대사 표충사기적비의 귀면
대흥사 조선(1791년)

자료가 되었다. 귀면은 정제되었는데 눈과 코가 부조되었고 입에 송곳니가 나 있다. 그런데 표충사비각에 함께 보존된 우측의 建祠事蹟碑는 1792년(정조16년)에 조성되었는데, 비좌 정면에 1개의 귀면이 새겨져 다른 모습이다.

4) 탑비 · 부도의 귀면

탑비는 승려의 생애를 적은 비로 부도가 세워진 뒤에 조성하였는데, 신라 하대부터 고승에 대한 숭앙심에서 비롯되어 널리 유행하였다. 부도는 승려의 사리나 유골을 안치한 묘탑으로 승탑이라 부른다. 그런데 간혹 탑비나 부도에 귀면이 장식되어 전술한 사적비와 함께 벽사기능을 잘 나타냈다. 구례 화엄사의 벽암국일도대선사비는 1663년에 세워졌는데 이수의 정면과 후면에는 이룡대신에 귀면 〈그림 27〉이 새겨졌다. 벽암각성(1575~1660)은 화엄사를 중창하였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투에 참전하였고 승군을 이끌고 남한산성을 축조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양산 통도사의 세존비(1706년)와 고성



〈그림 27〉 벽암국일도대선사비의 귀면 화엄사
조선(1663년)

건봉사의 운파대사비(1730년), 속초 신흥사의 벽파당비(1828년) 등은 비좌에 귀면을 새겼거나 이수의 한 측면과 두 측면에 귀면을 장식하여 다양한 변화 나타냈다.

해남 미황사의 부도는 남부도군과 서부도군으로 구

분되는데 귀면이 장식된 여러 형태의 탑비와 부도가 남아 있다. 남부도군의 벽하대사사리탑(〈그림 28〉)은 1764년에 세워졌는데, 비의 비좌와 옥개석(〈그림 28-1〉)에 귀면이 각각 선각되어 주요한 자료가 되었다. 그리고 서부도군의 고압당 부도(〈그림 29, 29-1〉)는 중대석에 선각된 귀면이 물고기와 초화 등과 함께 장식되어 이채롭다. 한편 여수 흥국사의 부도 가운데 응운당 부도(〈그림 30〉)는 석종형으로, 옥개석



〈그림 28〉 벽하대사사리탑의
귀면 미황사 조선
(1764년)



〈그림 28-1〉 옥개석의 귀면



〈그림 29〉 고압당 부도의 귀면 미
황사 조선



〈그림 29-1〉 귀면 세부



〈그림 30〉 응운당 부도의 귀면
홍국사 조선



〈그림 30-1〉 옥개석 귀면 세부

의 각 모서리에 귀면 〈그림30-1〉이 장식되었는데 조선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귀면은 마손되었으나 눈이 튀어나왔고 이빨을 드러낸 무서운 모습이다.

Ⅲ. 「왕」자명귀면기와

1. 사원출토 귀면기와

기와는 점토로 제작되어 가마에서 높은 온도로 구워낸 건축부재이다. 그런데 사원에서 출토한 귀면기와도 지붕에 사용되어 불전 외부의 귀면장식에 해당되는데, 전술한 여러 귀면과 같이 사귀와 잡귀를 막는 주요한 벽사기능을 한다. 사원의 기와는 불교의 전래와 함께 삼국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제작되었는데, 연화·인동·보상화·당초·금수·귀면·인면 등이 새겨져 불교적 특성과 함께 길상 및 벽사를 잘 나타냈다. 귀면이 새겨진 사원의 기와는 사용처에 따라 수막새와 암막새, 부연기와와 사래기와, 마루끝기와와 망와, 치미와 보탑장식 등으로 구분되는데, 귀면이 새겨진 이와 같은 기와를 귀면기와로 통칭하였다.

귀면문수막새는 고구려의 절터로 알려진 대동군 상오리<그림31>에서 출토하였다(국외소재문화재재단 1915, 272p.) 5세기 전반 경에 제작된 적색기와로 입을 크게 벌리고 두 눈을 강조하였는데 이마의 뿔은 묘사하지 않았다. 귀면문수막새는 삼국시대의 신라를 비롯하여 통일신라 및 고려와 조선까지 계속 제작되었는데 각 시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귀면문암



〈그림 31〉 귀면문수막새 상오리사지 고구려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32〉 귀면문암막새 석굴암

막새는 통일신라와 고려, 조선시대에 약간씩 제작되었다. 경주 석굴암에서 출토한 암막새〈그림32〉는 8세기중반에 제작되었는데 귀면의 입에서 귀기가 뿜어져 나오는 형상을 하고 있다.

귀면이 새겨진 부연기와〈그림33〉는 부여의 가탑리절터에서 출토하였다. 백제의 대표적인 귀면기와로 화염이 이글거리는 두 눈과 입을 크게 벌렸는데 턱 밑에는 수염이 무성하다. 귀면문사래기와는 사래의 부식과 장식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와로 통일신라시대에 귀면문



〈그림 33〉 귀면문부연기와 가탑리사지
백제 국립부여박물관



〈그림 34〉 귀면문사래기와 불국사
통일신라 국립경주박물관



〈그림 35〉 귀면문마루끝기와
항룡사지



〈그림 36〉 누각 · 귀면문전돌 중산리사지 통일신라
국립경주박물관

마루끝기와와 함께 매우 성행하였다. 경주 불국사에서 출토한 귀면문사래기와(그림34)는 파손되었으나 하단부가 평평하며 못 구멍이 있다. 귀면은 눈이 뚜렷하며 이마에는 우각형의 뿔이 있다.

지붕의 마루 끝에 사용되는 귀면문마루끝기와(그림35)는 경주 항룡사지에서 출토하였는데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귀면기와이다. 원두방형의 기와로 귀면이 정형화되었는데 이마에는 분기한 뿔이 있다. 귀면문마루끝기와는 고려와 조선시대에도 계속 제작되었고 조선 후기에 점차 단청의 단독문양으로 대체되었다. 그런데 청주 흥덕사에서 출토한 고려의 치미는 후면에 귀면이 장식되어 특이하며, 조선 시대의 망와에는 귀면이 간략하게 새겨져 벽사기능을 나타냈다.

울산 중산리사지와 경주 사천왕사지에서 누각 · 귀면문전돌과 귀면문전돌이 출토하여 주요한 자료가 되었다. 누각 · 귀면문전돌(그림 36)은 전탑의 축조용으로 통일신라 초에 제작되었는데, 전돌 모서리에 귀면이 장식되어 탑에 대한 벽사의 기능을 나타냈다. 마루기와의 일종으로 용마루에 이어진 보탑장식(그림37)이 영광 불갑사의 대웅전에서 수습되었다(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92, 109~110pp.

김성구 2014, 146~149pp.). 보
 탐장식은 귀면이 새겨진 받침위
 에 작은 지붕을 올렸는데, 「갑신
 오월」의 문자에서 1764년(영조
 40년)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
 다. 귀면은 받침의 전면과 후면
 에 새겼는데 눈동자에 백자편이
 박혀있어 눈을 강조하였다.



〈그림 37〉 보탐장식 불갑사 조선
 불갑사성보박물관

2. 「왕」자명귀면기와

「왕」자가 새겨진 귀면기와는 수막새로, 김제 금산사의 발굴조사에
 서 출토하여 중요시되었다. 발굴조사는 2007년에 선방을 건립하기
 위하여 봉천원이 있었던 곳으로 알려진 지역에서 실시하였는데, 고
 려시대의 배수시설에서 「왕」자명귀면문수막새(그림38)가 출토하였



〈그림 38〉 「왕」자명귀면문수막새
 금산사 고려



〈그림 39〉 「왕」자명귀면기와 안압지
 통일신라 국립경주박물관



〈그림 40〉「왕」자명 금은다구
중국 당 법문사박물관



〈그림 40-1〉귀면형다리

다. 그런데 발굴조사의 결과 건물터는 3칸 이상의 전각으로, 금산사를 중창했던 혜덕왕사 또는 왕사각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간주하였다(금산사·(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07, 5~20pp.). 「왕」자명귀면문수막새는 고려 중기의 기와로 무섭게 의장한 귀면의 이마에 「왕」자를 새겼다. 귀면은 입을 크게 벌려 송곳니를 드러냈는데 치켜진 두 눈의 눈썹이 불꽃과 같이 날카롭다. 미간에 작은 보주가 있고 둥글게 굽어진 이마의 두 뿔 안에 「왕」자를 양각하였다. 회백색의 연질기와로 태토가 정선되었는데 소성당시의 熏燒技法이 확인된다.

한편 「왕」자명귀면기와와 「왕」자명금은다구가 통일신라와 중국 당의 여러 유적에서 출토하여 전술한 「왕」자명귀면문수막새와 대비되고 있다. 「왕」자명귀면기와는 경주 안압지〈그림39〉에서 출토한 사례기와로 동형의 기와가 경주 월성에서도 출토하였는데, 통일신라의 8세기후엽에 제작된 것으로 간주된다. 圓頭方形으로 귀면이 무섭게 부조되었는데 「왕」자는 이마의 뿔 위에 양각되었다. 그리고 ‘金銀絲

結條籠子'로 불리는 금은다구<그림40>는 중국 당의 法門寺 地宮에서 출토하였는데, 귀면형다리에 「왕」자가 새겨져 특이하다(法門寺博物館·中國陝西旅遊出版社 1994, 110~111pp.). 금은다구는 당의 회종이 873년에 범문사에 보낸 공양품의 하나로, 당시의 공예수준과 茶道具의 중요성을 살필 수 있는 주요한 자료이다. 금은다구의 귀면문다리<그림40-1>는 모두 네 개로 귀면의 이마에 「왕」자가 음각되었는데, 경주 안압지와 월성에서 출토한 통일신라의 귀면문사래기와 와 김제 금산사에서 출토한 고려의 귀면문수막새에 양각된 「왕」자와 친연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귀면기와에 「왕」자가 새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하다. 「왕」자는 그 개념에 따라 군주나 임금, 수령이나 우두머리 등과 함께 최고의 위치와 그 군림을 의미하고 있으나, 비유적으로 어떤 분야나 범위에서 으뜸이 되는 지위를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귀면에 「왕」자가 새겨진 것은 잡귀와 사귀를 막는 벽사의 으뜸과 최고 지위를 나타낸 것으로, 김제 금산사 봉천원구에서 출토한 「왕」자명귀면문수막새는 중국 당의 금은다구와 통일신라의 「왕」자명귀면기와, 후술한 조선시대 불단과 세존비의 「왕」자명귀면 등과 관련되어 귀면의 벽사 기능을 한층 더 강조한 으뜸의 의미로 간주된다. 그리고 후술한 바와 같이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현묘탑비의 「왕」자명귀갑과 중국 당의 「왕」자명귀갑문견직물을 통하여 「왕」자는 귀면이외에 귀갑의 또 다른 장식의장으로 동아시아에서 계속 사용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3. 「王」자명귀면장식

기와이외에 「왕」자가 새겨진 귀면장식은 대웅전의 불단과 비석의 비좌, 방패 등에서 확인되었는데, 「왕」자명귀면기와의 벽사기능과 으뜸의 의미를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간주된다. 「왕」자가 새겨진 불단의 귀면은 청도 대비사와 강화 전등사, 순천 정혜사 등의 각 대웅전에 장식되었다. 대비사의 대웅전(보물 제834호)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식 팔작지붕으로 조선 중기의 건축양식을 나타냈다. 불단은 장방형인데 기단을 제외하고 근래에 대부분 수리되었다. 불단의 귀면〈그림41〉은 기단부의 정면에 4개, 양 측면에 각 1개씩 모두 6개인데, 당초를 물고 있는 귀면의 이마위에 「왕」자가 묵서되었다.

강화 전등사의 대웅전(보물 제178호)은 1621년(광해군13년)에 재건되어 그 후 중수되었다. 불단은 장방형으로 하단부가 3층을 이루었는데, 2층과 3층에는 모란과 연화, 국화 등이 새겨졌고 1층에는 정면에 12개, 두 측면에 각 5개씩 모두 22개의 귀면이 장식되었다. 「왕」자명귀면〈그림42, 42-1〉은 불단의 정면과 측면에 4개가 장식되었는



〈그림 41〉 「왕」자명귀면 대비사 조선



〈그림 42〉「왕」자명귀면 전등사 조선



〈그림 42-1〉「왕」자명귀면

데, 귀면의 이마에 「왕」자가 묵서되었다. 그런데 두 귀면은 입에 문 연화나 수염 등 그 의장이 서로 달라 제작시기의 차이를 보였다. 순천 정혜사의 대웅전(보물 제804호)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다포계 팔작지붕으로, 정유재란 때 큰 피해를 입었으나 1617년(광해군 9년)에 개수되었다. 불단은 장방형으로 하단 1층 정면에 9개의 귀면이 장식되었다. 「왕」자명귀면〈그림 43〉은 불단의 정면과 좌측면에 2개가 장식되었는데 귀면의 이마에 「왕」자가 묵서되었다.

비석에 새겨진 「왕」자명귀면은 양산 통도사 世尊碑의 비좌〈그림 44〉에 부조되었다. 통도사의 세존비는 1706년(숙종32년)에 계파



〈그림 43〉「왕」자명귀면 정혜사 근대



〈그림 44〉「왕」자명귀면 통도사 세존비 조선

대사가 사리게단을 중수하고 석가여래의 사리비를 세우면서 불사리의 행적을 밝힌 중요한 비석이다(통도사성보박물관 1987, 83p.). 비좌는 정면을 3구간으로 나누고 좌측과 우측에 연화를 장식하고 중앙에 「왕」자명귀면을 새겼다. 귀면은 눈을 부릅떴고 뿔이 분기하였는데 입에 간략한 연화를 물고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휴대용방패에 「왕」자명귀면<그림45>이 장식되어 특이하다. 이 방패는 전쟁 때 병사가 적의 화살을 막기 위하여 사용



〈그림 45〉 「왕」자명귀면 휴대용방패 조선 국립고궁박물관

했던 흉방패의 일종으로 뒷면에 손잡이가 있다. 방패는 길쭉한데 상단이 V자형을 이루었고 하단은 평평하다. 귀면은 안면이 확대되어 위압적인 모습인데 이마에 「왕」자를 넣어 벽사기능을 나타냈다.

한편 원주 법천사지의 지광국사현묘탑비(국보 제59호)는 지광국사(984~1070)의 행장과 공적을 추모한 고려 전기의 대표적인 석비로, 귀부의 귀갑 안에 「왕」자가 새겨져 중요시되었다. 귀갑문<그림46>은 귀부의 사각형 구획 안에 「왕」자와 함께 다수 새겨졌는데, 장수의



〈그림 46〉「왕」자명귀갑 법천사지
지광국사현묘탑비 고려



〈그림 47〉「왕」자명귀갑 견직물 중국
당 신강유오이자치구박물관

의미인 비석의 무궁한 보존과 벽사를 상징하고 있다. 그런데 귀갑 안에 「왕」자가 새겨진 것은 전술한 「왕」자명귀면과 같이 탑비의 보존과 벽사를 위한 으뜸의 의미로 간주된다. 그리고 중국 신강자치구 투루판시 아스타나 북구 44호 묘에서 「왕」자명귀갑문견직물〈그림 47〉이 출토하여 주요한 자료가 되었다(솔대 2007, 214p. 도149). 이 견직물은 베개 덮개로 같은 무덤에서 출토한 「영희 6년(655)」명의 묘지석에서 그 제작시기를 짐작할 수 있는데, 귀갑 안과 귀갑 사이에 「왕」자가 새겨져 장수와 벽사의 으뜸임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중국 당의 여러 기물에 새겨진 「왕」자는 으뜸과 최고의 의미로, 귀면과 귀갑의 또 다른 장식의장으로 동아시아에서 오랫동안 계속 사용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IV. 귀면의 특성

1. 정면관

귀면은 무서운 귀신의 얼굴로 사귀와 잡귀를 막는 벽사적인 의미를 지녔다. 우리나라의 귀면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고분벽화와 기와, 사원의 불단과 보퐁목, 화반과 궁창, 석탑과 사적비 및 부도 등에 다양하게 새겨졌다. 그런데 한국사원의 귀면장식과 귀면기와는 전술한 바와 같이 여러 종류로 구분되어 많은 변화와 다양한 모습을 나타냈으나, 대부분 몸체를 생략한 정면관으로 의장되는 독특한 특징을 이루었다.

귀면은 중국 상주시대의 청동기에 장식된 도철이 원류로, 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무서운 수면으로 변모하였다. 도철은 몸체가 없는 정면향이 특색인데, 귀면도 이를 계승하여 앞을 주시하는 정면관위 주로 구현되었다. 중국 연의 기와인 도철문반막새<그림 48>는 도철이 기와에 채용된 주요한 자료인데, 중국 상주시대 청동기의 도철문과 같이 정면관이다. 우리나라의 귀면도 몸체가 없는 정면관으로 장

식되어 주요한 특성이 되었는데, 전술한 사원의 귀면 장식과 귀면기와도 앞을 주시하는 정면향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용은 몸체를 지닌 측면관



〈그림 48〉 도철문반막새 중국 연 국립중앙박물관

으로 의장되어 귀면과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김성구 2015, 240p.).

2. 부조형과 단청문양

사찰의 귀면장식은 대개 浮彫形과 단청문양으로 구분된다. 부조는 나무나 돌과 같은 평면재료를 깎거나 파고 붙이는 방법으로 여러 형상을 표현하였는데 사찰의 귀면장식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단청은 그림이나 무늬를 그려 색칠한 것으로 건축부재의 단장과 부식을 방지하는 보존효과를 함께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귀면이 그려진 단청은 많지 않으나 창호의 궁창이나 빨목의 마구리에 주로 사용되었고 최근에 성행하고 있다.

부조는 대개 平浮彫와 高浮彫로 구분되며 각 부위에 따라 채색의 명암이 대비된다. 사원의 귀면장식 가운데 평부조에 해당하는 것은 귀면화반과 사적비 및 탑비의 귀면, 부도와 소맷돌의 귀면 등이다. 귀면화반은 네모난 나무판에 귀면의 형상을 새기고 파냈는데 거의 沈彫에 가까운 모습이다. 그리고 귀면의 각 부위에 청색과 황색, 적색과 흰색 및 흑색을 가칠하여 강렬하고 위협적인 형상을 나타냈다. 사원의 귀면장식 가운데 고부조에 해당하는 것은 불단과 보빨목의 귀면, 석탑과 사리장엄구의 귀면장식, 개암사 대웅보전 공포사이의 귀면과 용문사 대장전의 평방빨목의 귀면 등이다. 보빨목의 귀면은 그 형상이 마구리뿐만이 아니라 측면까지 조각되거나 색이 칠해져 입체적이다. 그러나 귀면은 정면관 위주로 丸彫와 차이를 나타냈는데, 용문사 대장전의 평방빨목 귀면은 별도로 조각하여 부착한 고부조에 해당된다.

귀면의 단청은 단독문양과 머리초문양으로 구분된다. 단청의 단독

문양은 연화와 주화, 파련화와 태평화, 모란과 칠보 등 매우 다양한데, 귀면은 여러 빨목과 창호의 궁창에 주로 채용되었다. 귀면은 층량과 도리, 창방 등의 마구리에 단독문양으로 그려졌는데, 강진 백련사 대웅전의 도리와 파주 보광사 대웅전의 창방빨목의 귀면이 대표적이다.

궁창은 창호 하부에 장식된 널판자로, 연화와 모란, 보상화와 귀면 등이 단독문양으로 그려졌다. 창호는 여러 문짝이 조합되어 分閤을 이루었는데 중앙의 어칸에 귀면이 새겨져 벽사기능을 하고 있다. 김제 금산사 대장전의 창호는 이분합으로, 궁창에 연꽃을 물고 있는 귀면이 단독문양으로 그려졌다. 그리고 머리초문양은 각 부재의 마구리에 넣는 단청문양으로 모로단청과 금단청에 주로 쓰인다. 그런데 머리초문양은 조선 후기부터 성행하였는데 대들보와 도리, 평방과 창방 등 사용부재나 형식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었다. 영덕 대들보의 귀면장식은 근대에 그려진 머리초문양으로 주요한 자료가 되었다.

3. 두 눈과 입을 강조하다

귀면은 정면관 위주로 이마에 뿔이 돋았고 두 눈을 부릅뜨고 입을 크게 벌려 송곳니를 드러낸 무서운 모습이다. 두 눈이 강조된 귀면자료는 신라의 수막새와 조선시대의 보 빨목의 귀면과 귀면문망와에서 잘 나타났다. 귀면·연화문수막새<그림49>와 귀면문수막새<그림50>는 경주 황룡사지의 발굴조사에서 500여점이 출토하여 645년에 조성된 황룡사9층탑에 사용된 신라기와로 간주하였는데(김성구 2015, 86~87pp.), 두 눈의 눈망울이 둥글게 튀어나왔거나 오목하게 움푹되



〈그림 49〉귀면·연화문수막새 황룡사지 신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그림 50〉귀면문수막새 황룡사지 신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어 차이를 보였다. 강화 정수사 대웅전의 보뽕목 귀면(그림51)은 눈 망울이 검게 칠해졌는데 아래로 향한 斜視의 눈초리가 날카롭다. 순천 선암사 산신각의 귀면문망와(그림52)는 1797년(정조21년)에 제작되어 현재까지 지붕에 이어졌는데, 귀면의 뺨과 코와 입이 생략된 채 두 눈만 새겨져 특이하다. 그리고 전술한 불갑사 보탑장식의 귀면과 같이 두 눈에 사기를 박아 눈을 강조한 것도 조선시대 귀면의 주



〈그림 51〉보뽕목귀면 정수사 대웅전 조선



〈그림 52〉귀면문망와 선암사 산신각 조선

요한 특징이다.

귀면은 입에 초엽이나 연화 및 물고기 등을 물어 특이한 의장을 나타냈다. 귀면은 원래 입을 크게 벌려 송곳니와 이빨을 드러내는 것이 보통이나, 鬼氣를 내뿜거나 당초와 같은 초엽이나 연화 및 물고기 등을 입에 물어 그 의미가 중요시되었다. 입에 초엽을 문 귀면장식은 물고기를 문 귀면과 함께 전술한 바와 같이 예천 용문사 대장전의 창방뿔목에 부착되었다. 귀면이 입에 연화나 당초를 문 것은 경산 환성사와 순천 동화사의 불단, 김제 금산사 대장전의 궁창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귀면이 연화와 당초를 입에 문 것은 사악한 기운을 막고 불법을 수호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 간주된다. 그런데 제석천의 지물인 금강저를 입에 물고 있는 귀면<그림 53>과 국화를 물고 있는 귀면이 경산 환성사의 불단에서 확인되어 불법수호와 함께 또 다른 장엄도 살필 수 있다.

물고기를 입에 문 귀면은 조선시대에 상당히 성행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영주 부석사 범종루의 판대공 귀면과 고성 옥천사 자방루



〈그림 53〉 금강저를 문 귀면 환성사 대웅전 불단 조선



〈그림 54〉 평방뿔목 귀면 용문사 대장전 조선

의 귀면화반, 통영 안정사 대웅전의 보빨목 귀면과 고흥 능가사사적비의 이수 귀면 등 그 실례가 적지 않다. 예천 용문사 대장전의 평방 빨목 귀면<그림54>은 입에 큰 물고기를 물었는데, 조선 전기의 작례를 보였다. 귀면은 청색귀면으로 빨이 분기하였고 두 눈의 눈망울이 도드라졌는데, 입에는 빨갭게 칠한 물고기를 이빨로 물었다. 그런데 살생을 금기시하는 사찰에서 귀면이 물과 관련된 물고기를 입에 문 것은 매우 특이한데, 火魔를 막기 위한 귀면 특유의 벽사적인 의장으로 간주된다. 우리나라의 목조건축은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과 관련된 용조각과 용두장식이 사용되었고, 魚龍形鴟吻과 용문막새, 「水」·「海」자명의 문자기와가 지붕에 이어졌다. 따라서 벽사의 상징인 귀면이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를 입에 문 것은 연화나 금강저를 입에 문 귀면의 불법수호와 달리, 사귀와 화마를 동시에 막기 위한 독특한 의장이라고 할 수 있다.

4. 以鬼制鬼의 벽사

귀면은 무서운 동물의 얼굴로 의장되어 사귀나 잡귀의 침입을 막고 화마와 질병을 예방하는 주요한 벽사를 의미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귀면은 기와뿐만이 아니라 사원의 불전 내부와 외부, 기타 여러 기물에 장식되어 불법의 수호와 함께 벽사의 기능을 잘 나타냈다. 그런데 조선 전기의 문헌설화집인 『海東雜錄』에 벽사와 관련된 鬼瓦의 기록이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權鼈 1670. 민족문화추진회 1967.).

『海東雜錄』의 「정창손」조<그림55>에 “창손이 정승노릇을 30년 하였고 거의 90세까지 살았는데, 하루는 집에 귀신의 妖邪가 갑자기 일어나서 대낮에 돌을 던지기를 그치지 않아 조정이 모두 아주 괴상히

鄭昌孫
東萊人。字孝仲。甲孫之弟。再捷科第。替我光廟。叅佐翼功臣。又參佐理功。三爲首相。不事產業。諡貞。昌孫爲相三十年。年幾九十。一日家有鬼妖。忽作。白晝投石不已。舉朝大怪之。公燒殺鬼瓦。以禳之。其妖遂息。公亦康強無恙。成三問及金碩等。謀復魯山。碩知事必不成。馳去與妻父昌

〈그림 55〉 귀와 기록
『해동잡록』 조선

여겼는데, 공이 鬼瓦를 태워 죽여서 누르니 그 요사함이 그치고 공도 건강하여 병이 없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海東雜錄』에 나오는 “燒殺鬼瓦”의 문구에서 「귀와」라는 기와명칭과 함께 이를 태워서 귀신의 요사함을 막아냈다는 벽사가 확인되어 중요시되었다. 따라서 귀와는 중국에서 오랑캐를 이용하여 다른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전략인 以夷制夷와 같이, 사람이 무서운 귀신을 이용하여 다른 요사한 귀신을 막아낸다는 의미인 이귀제귀와 같은 벽사적의 특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김성구 2015, 238p.).

5. 신조어 龍面の 착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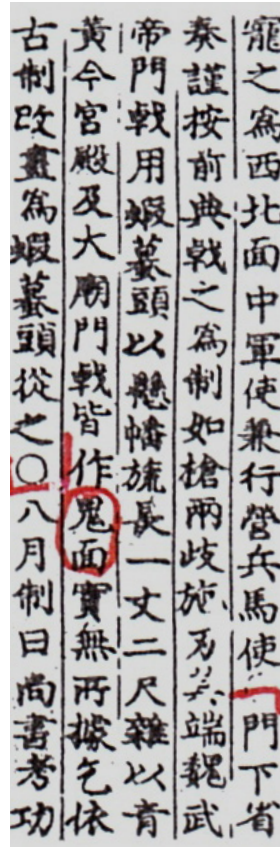
귀면이 용면이라는 주장은 별다른 근거 없이 그 명칭에서 제기되었다. 귀면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사용한 말로 우리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귀면대신에 용면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귀면의 연구와 학계에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하였다(강우방 2000, 420~429pp.

2007.). 그리고 귀면와는 일본 鬼瓦의 영향으로 사용되어 귀면와를 龍面瓦로 재고해야 한다는 견해(국립경주박물관 2011, 7p.)와 함께

鬼龍이나 귀면용왕 등의 신조어가 최근에 사용되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鬼瓦와 귀면의 명칭은 『高麗史節要』와 『海東雜錄』, 『朴氏傳』 등 우리나라의 여러 문헌에 기록되었다. 귀와는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 전기의 문헌실화집인 『海東雜錄』에 기록되어 벽사를 잘 나타냈고, 귀면은 고려 시대의 역사를 편년체로 정리한 사서인 『高麗史節要』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판소리의 다섯 마당가운데 하나인 《수궁가》와 휴정이 쓴 《회심곡》과 《별회심곡》 등에 ‘魚頭鬼面’ ‘魚頭鬼面羅刹’ 등의 명칭이 나와 고려와 조선 시대에 사용한 순수한 우리말임을 알 수 있고 여러 자료를 통하여 귀면과 용의 차이를 살필 수 있었다²⁾.

『高麗史節要』 4권 「문종 원년(1047)」조(김중서 외 2004)에 “문하성이 아뢰기를… ‘궁전과 태묘에 세운 戟은 모두 귀면을 그려 근거가 없으니 옛 제도를 따라 두꺼비머리로 고쳐 그렇게 하소서’ 하니 따랐



〈그림 56〉 귀면 기록 『고려사절요』 조선

2) 필자의 논고인 「한국의 기와연구와 주요과제」에서 ‘귀면은 귀면이고 용은 용이다’라는 항목을 설정하고, 귀면과 귀와에 대한 새로운 문헌기록을 발췌하여 용면의 잘못된 점과 귀면과 용의 상위에 대하여 여러 자료를 통하여 검토하였다(김성구 2015, 237~240pp.).

다”라는 내용에서 ‘作鬼面’의 문구<그림56>가 확인되어 귀면의 명칭이 일본인이 사용했던 시기보다 훨씬 이전인, 고려 문종 때인 1047년에 이미 사용했던 우리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귀면은 벽사를 상징하는 주요한 우리말로 국어사전에도 그 뜻이 풀이되었는데, 獸面이나 도깨비, 신조어인 龍面이나 귀면과 용을 합성한 귀면용왕, 鬼龍 등으로 부르는 것은 부적합하며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한국사원의 귀면장식은 불전의 내부와 외부, 기타 귀면 등으로 분류하여 많은 자료를 집성하였는데 대부분 조선후기의 작례를 나타냈다. 불전의 내부는 불단과 보·충량, 판대공과 내부화반 및 윤장대에, 불전의 외부는 보뿔목과 도리, 창방과 평방뿔목, 외부화반과 궁창 및 소맷돌에 장식된 귀면 등 매우 다양하게 구분되었다. 기타 귀면장식은 석탑 및 사리장엄구, 향로와 사적비, 탑비와 부도 등에 새겨진 귀면으로 부조된 모습이다.

김제 금산사 봉천원구에서 출토한 「왕」자명귀면기와를 계기로 사원건축의 지붕에 사용된 귀면기와의 종류와 변천을 간단히 살필 수 있었다. 사원 출토 귀면기와는 사용처에 따라 수막새와 암막새, 부연기와와 사래기와, 마루끝기와와 망와, 치미와 보탑장식 등으로 구분되었는데 삼국부터 조선시대까지 벽사의 주체로서 매우 성행하였다.

김제 금산사 봉천원구의 발굴조사에서 출토한 「왕」자명귀면기와는 고려시대의 수막새로 「왕」자의 의미가 중요시되었다. 그런데 경주 안압지와 월성에서 출토한 사래기와와 중국 당의 범문사에서 출

토한 금은다구, 강화 전등사와 순천 정혜사의 대웅전의 불단, 양산 통도사의 세존비와 휴대용방패에 새겨진 「왕」자명귀면을 통하여 「왕」자가 잡귀와 사귀를 막는 벽사의 최고 지위와 으뜸의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귀면은 무서운 귀신의 얼굴로 사귀와 잡귀를 막는 벽사를 상징한다. 귀면은 몸체를 생략하고 앞을 주시하는 정면관 위주로, 두 눈과 입을 특히 강조하며, 사람이 무서운 귀신을 이용하여 요사한 사귀를 막아낸다는 이귀제귀의 벽사 등이 가장 주요한 특성이 되고 있다. 그런데 입에 물고기를 문 귀면은 조선후기에 상당히 성행하였는데, 화마를 막기 위한 벽사의 또 다른 특수한 의장으로 간주하였다.

한편 귀면과 귀와는 일본인이 사용한 일본말이 아니라, 『高麗史節要』와 『海東雜錄』, 『朴氏傳』 등의 우리나라의 여러 문헌에 기록되었거나 《수궁가》와 《회심곡》 및 《별회심곡》 등의 여러 가사에 나왔던 순수한 우리말이다. 따라서 귀면을 獸面이나 도깨비, 신조어인 龍面이나 鬼龍 등으로 부르는 것은 부적합하며 잘못되었다

참고문헌

- 강우방, 2000, 「韓國瓦當藝術論序說」, 『新羅瓦塼』, 국립경주박물관.
——, 2007, 『韓國美術의 誕生, 世界美術史의 定立을 위한 序章』, 솔.
- 국립경주박물관, 2011, 『月池出土 龍面文瓦 資料集』.
- 권궐, 1670, 1798(일부판각), 『해동잡록』.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1915, 『돌아온 와전 이우치 컬렉션』.
- 금산사 · (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07, 『금산사 선방건립예정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 김성구, 2014, 「조선시대의 마루기와와 그 특성」, 『최근 기와출토유적과 조선시대의 마루기와』, 한국기와학회.
——, 2015, 「한국의 기와연구와 주요과제」, 『釜山기와 지붕에 기품을 더하다』, 부산박물관.
——, 2015, 「황룡사지 출토 신라의 고식기와」, 『황룡사 와전 및 철물 복원고증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 · 경주시.
- 김중서 외, 2004, 『新編高麗史節要』 上, 문종, 민족문화추진회, 신서원.
-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86, 「전등사 대웅보전」, 『한국의 고건축』, 제8호.
——, 1988, 「환성사 대웅전」, 『한국의 고건축』, 제10호.
——, 1992, 「불갑사 대웅전」, 『한국의 고건축』, 제14호.
- 문화재연구소 · 미륵사지유물전시관, 2008, 『미륵사지출토 금동향로』.
- 민족문화추진회, 1967, 「海東雜錄」 六, 『大東野乘』 V, 卷之二十三, 민문고.
- 法門寺博物館 · 中國陝西旅遊出版社 1994, 『法門寺』.
- (재)솔대, 2007, 『中國국보전』
- 통도사성보박물관, 1987, 『한국의 명찰 통도사』.

Monster Face ornamentation in Korea Buddhist Temple

Focused on ‘Wang’(王: King) inscribed monster face tile
discovered in Geumsansa Temple of Gimje

Kim Seong Gu ex-Director of Gyeongju National Museum

Usually Monster face ornamentations in Korea Buddhist temple we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such as exterior tile, interior tile and the rest which are mostly examples of Late Joseon Dynasty. After specified shape coding of ‘Wang’(王 : King) inscribed monster face tiles discovered in geumsansa temple, characteristics and various types of monster decoration tile have been brought into light thorough in this study.

Discovered ‘Wang’(王: King) inscribed monster face tile in Bongchun-wongu site of geumsansa temple is convex roof tile of Goryeo Dynasty. Through ‘Wang’(王 : King) inscribed monster face motifs like square rafter tiles discovered in Anapji pond, tiles of Wolseong castle of Gyeongju and Tang Dynasty silver and gold tea set from Famensi temple of China. Also this motif was discovered at the main Buddha altars of Jeondeungsa Temple in Gangwha, main hall of Jeonghyesa temple in Suncheon and Buddha's stele of Tongdosa temple in Yangsan Main function of these tile

motif is fabulous role to scare away evil forces.

Fanciful Monster face has fabulous role to protect from evil forces. Simply decoration with chimerical frontal face stressed with big eyes and mouth, real reasons to create this monster face was to protect and to scare away evil forces. A motif of fish in monster mouth which is very unique and popular in Late Choseon Dynasty was prevent from fire disaster. Monster face and Monster tile is Korean traditional term not as Japanese term which are mostly recognized. Many historical records prove this. I also suggest that the terms of Beast face, Dragon face, Monster dragon instead of Monster Face must be deserve little consideration.

